

▶ 도립국악원, '목요국악예술무대' 하반기 공연 시작... '여류명창 5인전' 7일 무대에



김세미 차복순 이연정 장문희 박영순

춘향 내적 심리, 섬세한 기교로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의 대표상설공연 2017 목요국악예술무대가 7일 창극단의 '여류명창 5인전-꽃보다 아름다운 춘향'을 시작으로 하반기 공연을 시작한다.

하반기 공연은 '어우름'을 주제로, 시대와 세대가 공감하는 전통예술을 선사할 예정이다. 창극단은 판소리 눈대목으로 꾸미는 무대를, 관현악단은 전통과 현대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무용단은 전통춤의 향연을 펼쳐 보인다.

예술무대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예술단원들의 개인 기량을 선보이는 단원 기획공연과 새내기 단원들이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한다.

14일에는 3단 새내기 단원들의 공연 '첫사랑처럼 반갑게-국악의 통로를 찾아서', 28일에는 관현악단의 '추야', 10월 12일에는 무용단의 '동류화폭에 춤을 달다', 10월 26일에는 창

이별가·망부가·심장가 동헌경사 대목 등 선보여

극단의 '낮익은 소리, 시대를 담은 소리꾼 김세미 심청가-연창', 11월 9일에는 무용단의 '출 in Vision', 11월 16일에는 관현악단의 '박상후의 적대소리-물화', 11월 23일에는 교육학 예술의 '본-화악, 어울려 즐거움을 더하다'가 기다리고 있다.

하반기 첫 무대를 여는 공연은 '여류명창 5인전-꽃보다 아름다운 춘향'. 여류 명창 5인 춘향의 상황별 내적 심리를 섬세한 기교와 능익은 목소리로 풀어낸다.

조통달 창극단장이 변성기로 목을 잃었을 때의 그 한을 아쟁산조에 고스란히 담은 작품 '아쟁산조 우방 조통달류'와 춘향의 절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이별가' 대목과 떠나간 입을 잊지 못한 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춘향의 마음을 표현한 '망부가' 대목이 잇달아 무대에 올려진다.

이어지는 '심장가'는 임을 위한 신의가 크나 큰 죄가 되어 모진 형장이래 매를 맞는 장면으로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육중가'는 직작한 옥방에서 한을 삭이며 울음을 우는 춘향의 마음을 귀신이 알아차리고 벗이 되어 준다는 내용을 그린다.

마지막은 춘향이 그림판 임을 만나 더 이상의 이별은 없음을 확인하는 '동헌경사' 대목으로, 애환과 해학이 서려 있다.

공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현장을 방문하면 1시간 전(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필사본 한글고전소설 감상하러 가자

전주완판본문화관, 27일까지 '목판본과 필사본 비교' 전

전주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은 '전주책 완판본, 목판본과 필사본 비교'전을 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완판본 서책 중, 목판본과 필사본의 비교가 가능한 한글고전소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목판본 한글고전소설은 내용을 책판에 새긴 후 인쇄해 제작한 도서나 출판물의 형태를 말한다. 19세기 후반부터 방각본 소설의 출현과 함께 발달한 목판 인쇄 문화는 동일한 형태로 대량 출판을 가능하게 해 출판물의 유통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주의 완판본은 대체로 반듯이 쓴 해서체로 돼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열녀춘향수절가', '별춘향전', '홍길동전', '조웅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반면 필사본은 인쇄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글을 써서 제작한 도서나 출판물의 형태로 돼 있다.



목판본 한글고전소설이 생기기 전부터 전주에서는 판소리 사설, 이야기 등을 필사하여 책을 만들어 읽었다. 이후, 목판본의 출현으로 손쉽게 책을 구할 수 있게 됐으나 이야기책을

손으로 베끼며 자신의 마음에 맞게 상상력을 동원해 고친 것들이 새로운 소설의 이본(異本)을 만들어냈다.

전시실에선 '심청전', '유충렬전', '현수문전', '소대성전' 등 다양한 필사본 한글고전소설을 만나 볼 수 있다.

완판본문화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한지와 먹이 만나 인쇄된 판본체의 조형미와 필사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필사본 서체의 미학을 한 눈에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무료로,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월요일은 휴관). /정해은 기자

전북지역의 70·80년대 생활상 담은 사진, 디지털로

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 '앨범사진 디지털을 만나다' 전북예술회관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지부장 고기하)는 '앨범사진 디지털을 만나다'를 7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미러내에서 갖는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시대의 흐름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고장의 70·80년대 생활상 및 풍경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필름·앨범속 추억의 사진들을 디지털 복원작업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

전시장에는 원로작가 오현규, 이종구, 윤재곤, 김춘식, 진해택 5인의 젊은 날의 흐릿한 기억과 추억을 되살린 사진들이 걸려 있다.

고기하 전주지부장은 "우리고장의 천년 역사와 전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본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7일 군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여성시대' 공연

군산시립합창단(단장 한준수 부시장은)은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 여성시대'라는 주제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박지훈의 지휘 아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의 애환을 음악극 형식으로 만들어 여성들의 행복과 자긍심, 삶의 보람을

일깨우고자 하는 내용으로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만 6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현장티켓은 공연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군산=장 현 기자

문화예술로 장애·비장애 간 벽 허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어줄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군산에서 진행된다.

예술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란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7 군산새만금장애인 예술제'가 5일 오후 7시부터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예술제 공연은 군산출신 예술가 박트리오와 소담 김금희 명창을 초청해 장애인 공연 팀과의 다양한 협연을 펼쳐 아름다운 무대로 공연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벤트 공연을 주관한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의 장종진 회장은 "음악이 감동을 주고 인간에게 힘을 주는 위대함이 있듯이 이번 예술제가 비장애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작은 파장이 되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소통과 나눔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장애인예술제를 계기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장애인과 동반자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노력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군산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며, "이번 장애인예술제에 많은 시민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및 장애인 보조활동과 지원사업 등 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재능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합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